

2017 한국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핀테크시대 혁신과 경쟁제고를 위한 은행산업 정책방향 제안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순서

- ◆ 핀테크시대 해외금융산업 현황
- ◆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 ◆ 국내 은행산업현황
- ◆ 인터넷전문은행도입과 성과
- ◆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에 대한 평가
-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책 방향 제안

핀테크란 무엇인가?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 + 기술(Technology).

금융서비스 기업의 영업행태와 송금, 결제, 대출, 자산관리 등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 서비스를 향상(enhance)시키고 파괴(disrupt) 하는 고성장 금융기술. (EY & HM Treasury, 2016.2 UK FinTech on the cutting edge)

기존의 금융산업은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 금융기관을 통한 매개화, 상품서비스가 공급자 관점 중앙집권적 방법에 의해 제공

핀테크는 Data-driven 된 금융서비스가 금융기관의 역할이 감소하는 탈 매개화 및 플랫폼 중심으로, 분화된 주체에 의해 사용자(소비자)관점에서 제공되는 종합적 변혁을 의미 (강영재, 2017)

이런 변화는 데이터 생산, 집적,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금융서비스업 진입에 대한 기술적 및 비용적 장애 요소가 크게 저하함으로써 가능

Unbundling of a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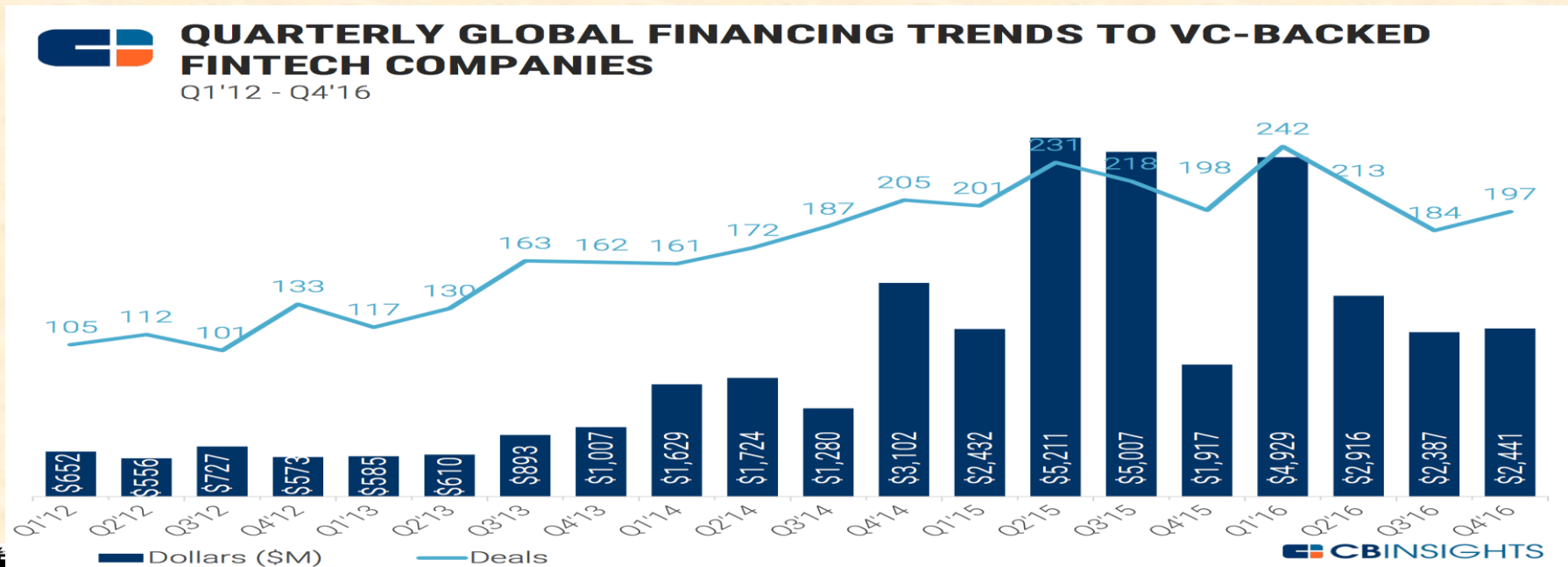


핀테크기업 현황

VC 글로벌 투자액 47% 가 중국의 핀테크 기업으로 쏠림

기업가치 1조 이상의 startup 기업인 223개 유니콘 가운데 27개 기업이 핀테크 기업이고, 이들 핀테크 기업 가운데 8개가 중국기업

한국은 높은 수준의 IT 인프라와 교육수준이 높은 인적 자본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비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숫자나 규모가 작고, 이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높지 않음



핀테크 유니콘

순위	회사	분야	설립	국가	기업가치 (억달러)
1	Ant Financial	모바일결제	04	중국	600
2	Lufax	P2P대출	11	중국	185
3	JD Finance	전자상거래 개인 대출	98	중국	70
4	Qufenqui	전자상거래 할부 대출	14	중국	59
5	Stripe	지급결제	10	미국	50
6	SoFi	P2P대출 (학생 대출)	11	미국	40
7	Credit Karma	신용평가	07	미국	35
8	Oscar Health	디지털 의료보험	13	미국	27
9	Mozido	모바일결제	05	미국	24
10	Adyen	지급결제	06	네덜란드	23
11	Klarna	지급결제	05	스웨덴	23
12	GreenSky	클라우드	06	미국	20
13	ZhongAn Insurance	온라인 보험	13	중국	20
14	Zenefits	SW	13	미국	20
15	One97	모바일결제	00	인도	20
16	Avant Credit	온라인대출	12	미국	20
17	Prosper	P2P대출	05	미국	19
18	FinancialForce.com	회계어플	09	미국	15
19	TransferWise	해외송금	10	영국	11
20	Gusto	급여관리	11	미국	10
21	Funding Circle	P2P대출	09	영국	10
22	Kabbage	P2P대출	09	미국	10
23	Jimubox	P2P대출	13	중국	10
24	Coupa Softwares	지출관리	06	미국	10
25	Zuora	SW(전자구독)	07	미국	10
26	China Rapid Finance	P2P대출	01	중국	10
27	Rong360	금융플랫폼 (금융상품 비교)	11	중국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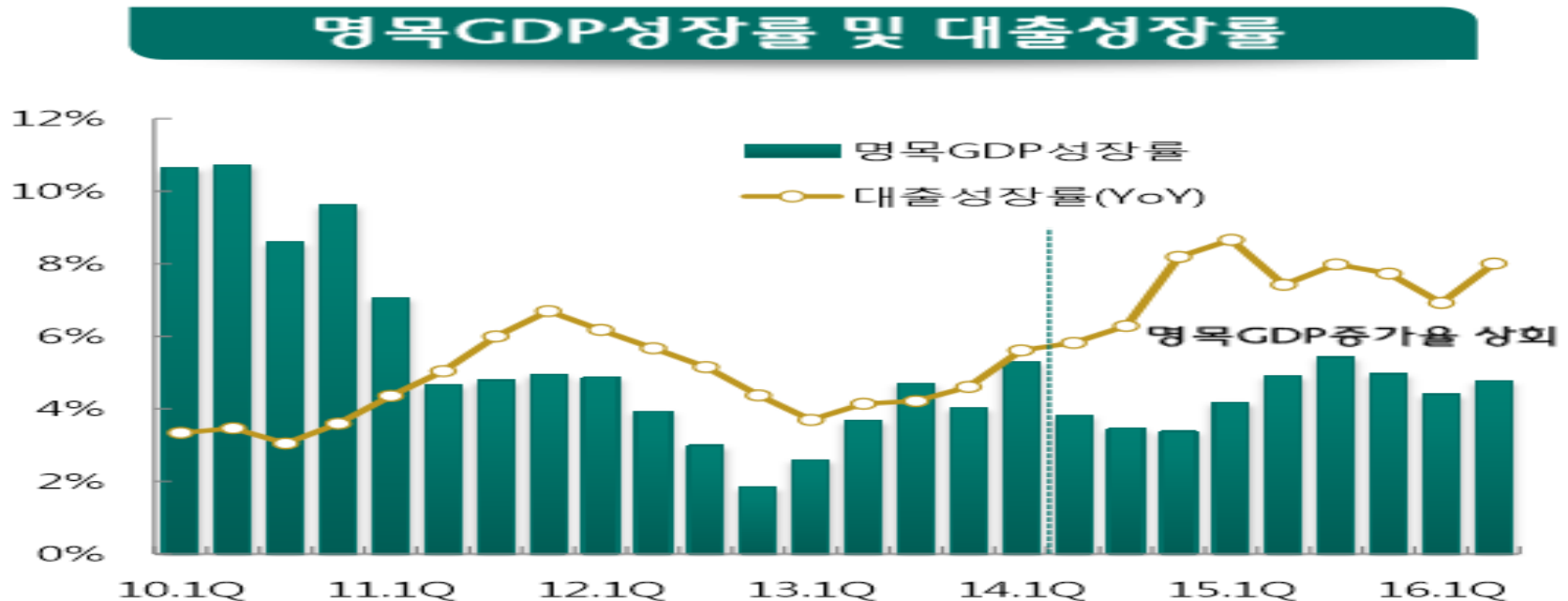
자료: Business insider, "The 27 fintech unicorns from around the world, ranked by value"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 ▶ 1990년대 미국에서 최초 도입.
- ▶ 설립주체, 형태별로 상이. 다양한 소유구조와 특화된 영업모델
 - 다양한 모기업. 은행계(주로 Division형태), 2금융권(증권, 보험, 카드) 회사, 기업계(유통, 자동차 등), 합자(은행+통신, 은행+포털)
 - 특화(Niche-Market)된 영업모델을 갖고 있음: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주로 영위 중(모기업--계열사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 서비스에 집중, 해외진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
- ▶ 대체로 산업자본의 진입을 허용. 업무범위, 건전성 규제 등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수준 적용
- ▶ 국가별 지역별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
 - (유럽) 은행 사업부형태로 운영 중. 역내 진출수단으로 활용
 - (일본) 대주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모델 운영 중
 - (미국) 금융 또는 기업계 (증권, 카드, 유통, 자동차 등) 주도로 사업모델 다양

국내 은행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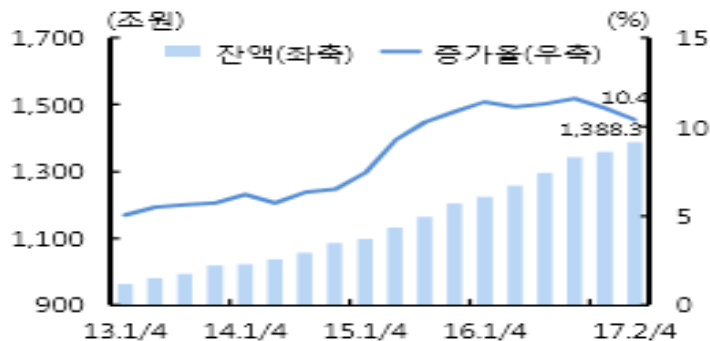
- ◆ 1997년 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경험한 은행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지난 수 년간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대출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성장
 -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을 상회하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참고로,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은행대출의 지나친 증가가 금융위기를 초래하는데 일조



담보대출---국내 은행산업 성장

- ◆ 국내 은행의 성장은 새로운 기술/서비스 혁신과는 괴리.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담보 및 정책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성장의 견인차 역할담당
 - 2017년 2/4분기말 현재 가계부채는 약 1400조이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서 가계신용 증가율은 이미 GDP
증가율은 물론 총대출증가율을 상회
 -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이 정책자금이거나, 담보에 기반
한 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임대업의 비중 약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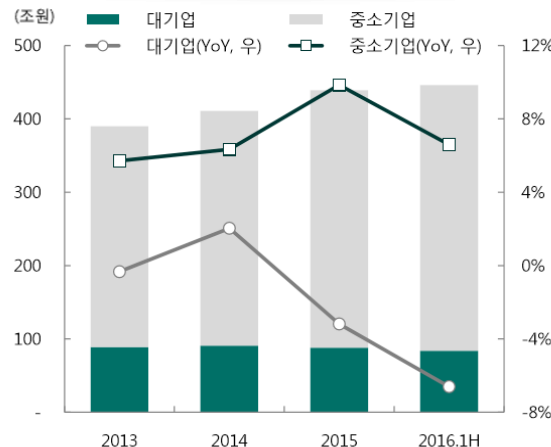
가계신용 잔액¹⁾ 및 증가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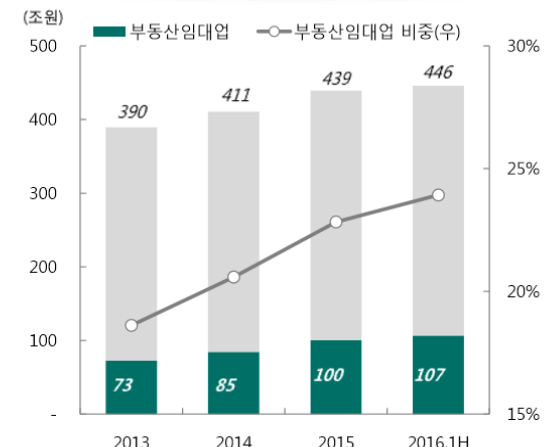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 기업대출 규모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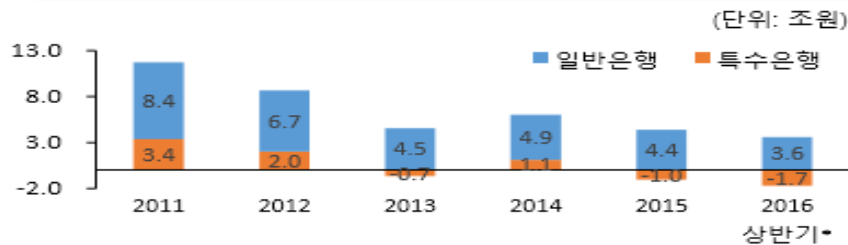
기업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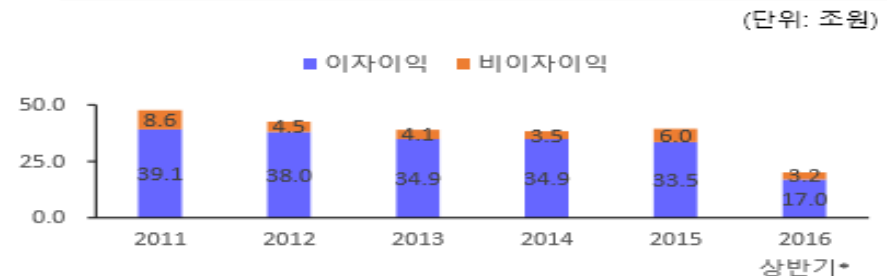
국내은행의 수익성 정체/저하

- ▶ 저금리속 대출 급증에도 은행의 순익은 정체 또는 오히려 감소
 - 저금리속 NIM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감소 효과가 대출잔고의 급증에 따른 수익성 증가 효과를 상쇄
 - 금리 인상시 예대이율 차이 증가로 대출이익 증가하나, 채권이익평가손실 또는 부동산시장의 급변동에 따른 리스크 발생가능성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행은 저금리정책하에서도 위기이전과 비교할 때 성과 개선. 국내 은행의 낮은 수익성이 저금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평가됨
 - 해외에 진출한 법인 수익성은 국내보다 낮음. 해외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체 수익모델의 경쟁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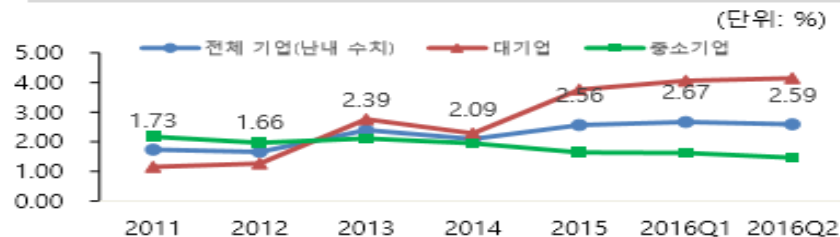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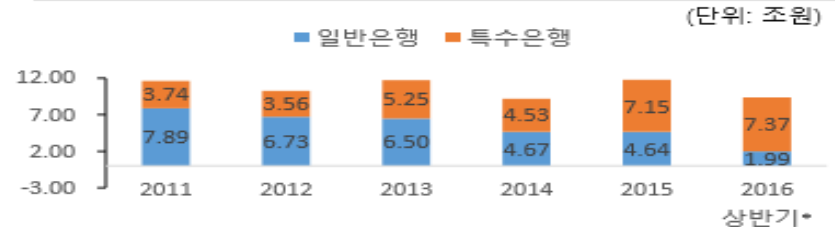
국내은행 수익구조 추이



국내은행 기업 부실채권비율 추이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



국내 은행산업—혁신기업에 대한 자본공급 미약

- ▶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본시장의 자본공급 역할 미약
- ▶ 은행산업이 담보에 기초한 대출에 집중하며 기업가치 평가기술, 신용위험평가 기술 등이 취약하여 모험자본이 필요한 혁신적 프론티어 (frontier)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미약 (신용성, 2017)
- ▶ 혁신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은행을 통한 대출이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을 크게 상회 (금융연구원, 2014)
 - 은행대출 전체에서 부동산대출비율이 높은 것은 은행산업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자본공급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함을 의미
 - 은행의 보수적 대출행태는 경제전반에 있어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업의 생성 및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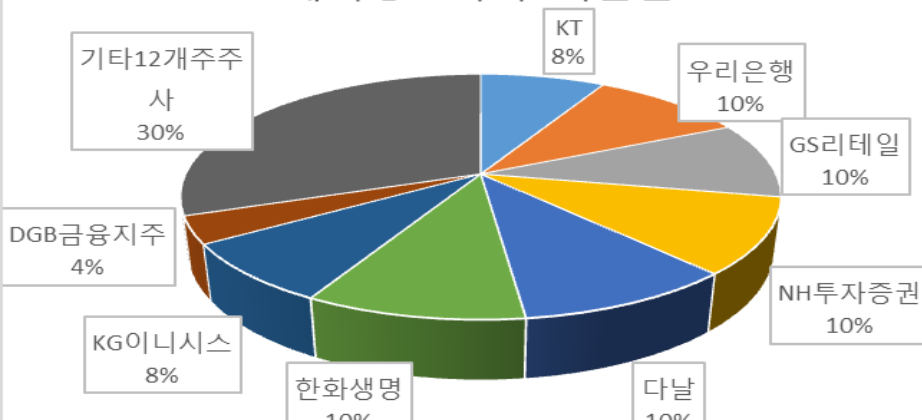
시장경쟁과 혁신

- ▶ 보수적인 대출에 의거한 영업방식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 국내 은행산업은 독과점적 구조에서 기존 은행들의 혁신 인센티브가 경쟁적인 시장보다 낮아 새로운 기술과 성장동력 창출하지 못함
 - 경쟁시장 기업이 독점적 기업보다 major innovation을 더 추구
 - 새로운 진입자들이 major innovation을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음
 - 기존 은행의 division 형태는 시장경쟁구조에 변화를 주기 어려워 새로운 은행의 등장이 필요
 - 반면, ICT 기업의 참여는 핀테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
 - 새로운 은행의 진입으로 은행산업의 경쟁도가 높아질수록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혁신이 발생할 수 있음.
 -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계층에 대해 추가로 서비스 제공
 - 동일한 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 등에 제공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 핀테크를 이용하여 은행업무의 분산화를 촉진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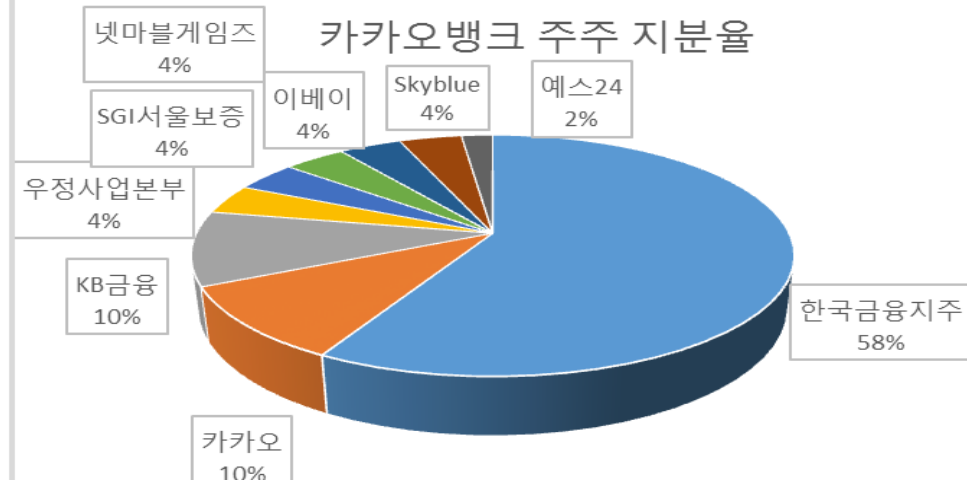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 ▶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2017년 4월 3일과 7월 27일 출범 이후 빠른 성장
-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기업과 ICT기업의 결합이며 소수의 주주들이 지분을 소유한 소유구조를 가짐
 - 핀테크 활용과 관련하여 플랫폼 또는 통신 관련한 ICT 기업들의 소유지분이 은산분리에 의해 10%이하로 제한되고 의결권은 최고 4%로 제한됨.
 - 출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대출수요로 이들의 대출여력을 소진하여 증자를 예상보다 앞당겨 실행
 - KT 케이뱅크 8% 소유, 카카오 카카오뱅크 10% 소유

케이뱅크 주주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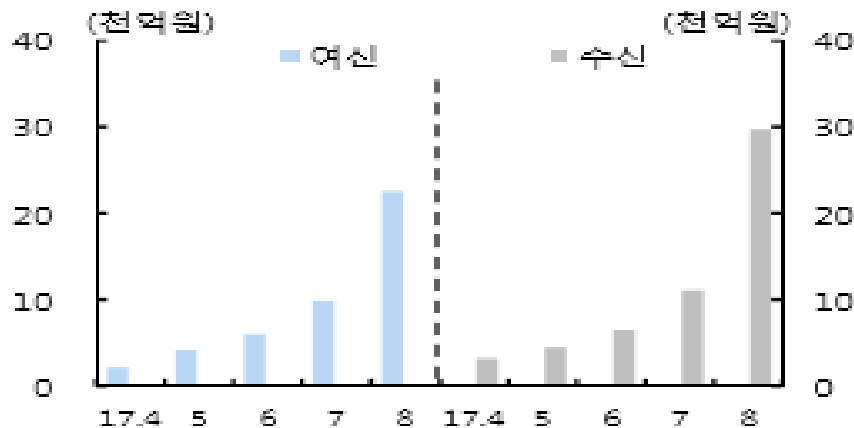
카카오뱅크 주주 지분율



인터넷전문은행---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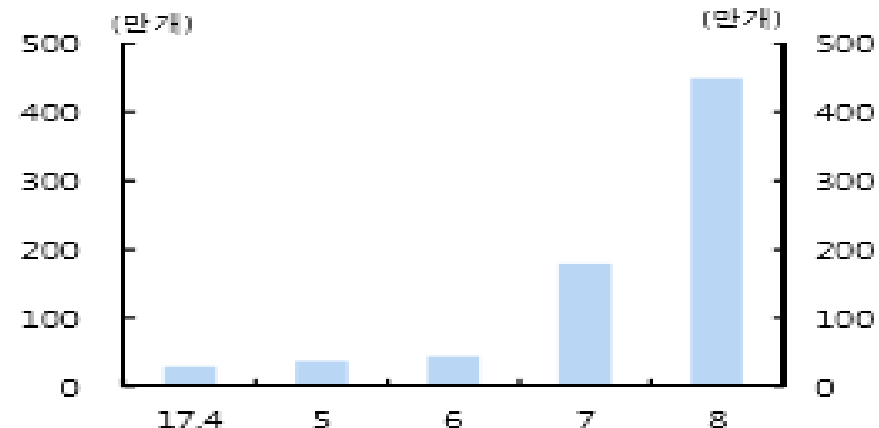
- ▶ 무점포영업, 완전비대면 영업방식에도 불구하고, ICT 기반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편리성과 24시간 접근성, 개점효과 등을 배경으로 여신 및 수신, 계좌개설 수가 급격히 증가
 - 2017년 8월 말 현재 수신 및 여신 규모가 각각 2조 9800억원과 2조 2500억원에 달하고, 계좌개설 건수는 449만건으로 단기간 폭발적 증가
 - 이런 증가는 특히 카카오뱅크의 출현 이후인 8월달에 집중됨.
- ▶ 계좌별 규모는 국내은행보다 작음. 계좌당 평균 수신액은 66만원, 차주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1백만원으로 국내은행보다 작음

인터넷전문은행 여수신 규모¹⁾



주: 1) 월말 잔액 기준
자료: 각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계좌개설 건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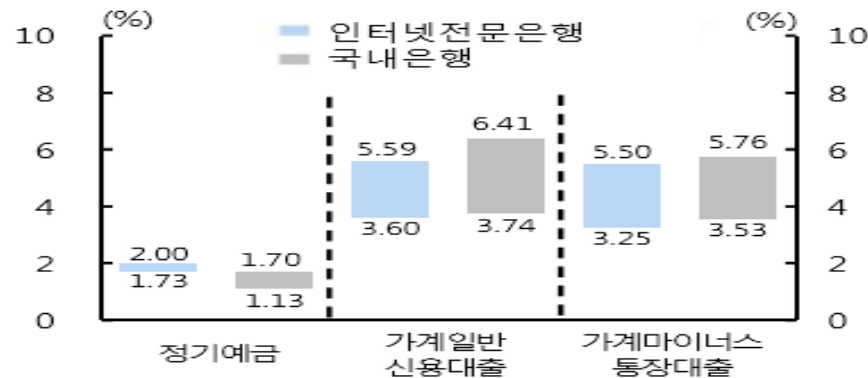


주: 1) 월말 기준
자료: 각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VS. 국내은행: 예금대출 금리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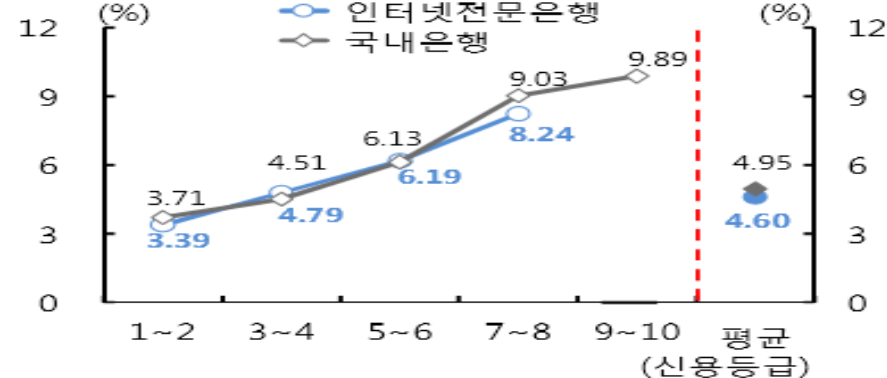
- ▶ 인터넷전문은행의 높은 예금금리는 예금자 입장에서는 혜택
 - 1년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국내은행 금리 (1.13%-1.7%)보다 높은 1.73%-2.0% 제공
 - 저금리환경에서 금리에 민감한 예금자를 유인하는데 도움
- ▶ 인터넷전문은행의 낮은 평균대출금리는 일부 신용등급을 가진 차주에만 해당. 중신용등급 차주의 경우 더 높은 대출금리 지불.
 - 낮은 대출금리는 1-2 등급 및 7-8 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진 차주에만 해당됨. 7-8등급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
 - 중신용등급자 (3-4 및 5-6 등급)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가 각각 4.79% 와 6.19%로 국내은행 평균 4.51%와 6.13% 보다 높음

금리 수준¹⁾



주: 1) 17.8월 공시기준 여수신 금리구간
자료: 은행연합회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금리¹⁾



주: 1) 17.8월 공시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에 대한 평가

- ➡ Too early to tell
- ➡ 한국은행의 평가: 기존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은 대출행태는 영업초기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축적이 부족하고 중신용자관련 신용평가모델의 구축이 미흡한 결과로 보임
- ➡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경제분과 평가: 대출부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은행의 최대 대출 가능 규모는 자기자본 규모에 의해서 결정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미미
 -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규제를 받아 BIS 자기자본비율을 만족해야 함
 -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감독기준은 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0%, 총자본비율 8.0% 이상
 - 17년 6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37%, 13.25%, 12.72% 수준

국내은행의 대출/대출 금리에 대한 영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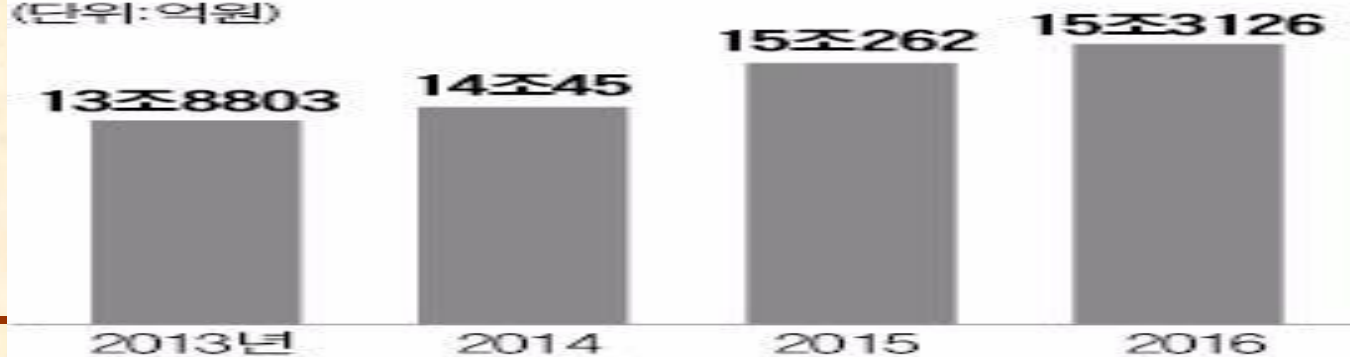
- ▶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이 작아 대출에 한계. 시중은행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하할 가능성 적음.
 -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시장잠식 효과 크지 않음
 - 대출시장 시장점유율의 미미한 하락을 막기 위해 전반적인 대출가격(즉, 대출금리) 인하전략은 기존은행입장에서 비효율적
- ▶ 일부 신용등급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금리가 낮다고 해도 현재까지 대출관련 하여 시중은행에 대한 효과는 미미함
 -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 (8000억, 3500억) 은 시중은행 (KB 자기자본 24조) 또는 지방은행과 비교할 때 작은 편 (대구은행 3.8조)
 - 은행 자본의 대부분은 납입자본금보다 이익잉여금에 의존
- ▶ 향후 대출부문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확충”이 관건
 - BIS 비율 15%에서, 1차 증자이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 대출액은 각각 4조 6100억원, 1조 6100억원임
 - 가계부채의 규모가 1400조에 육박한 것을 감안할 때, 대출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은 1%도 미치지 못함

국내은행의 송금/결제/수수료에 대한 영향

- ▶ 송금과 결제부분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정부 규제 또는 인하정책 없이도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줌
 - 수수료 관련 서비스 업무는 은행의 자기자본 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음. 인터넷전문은행은 낮은 수수료를 통해 관련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이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면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의 수수료 인하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수료 인하는 새로운 기술/방법을 가진 새로운 기업이 핀테크를 바탕으로 기존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

금융권 수수료 수익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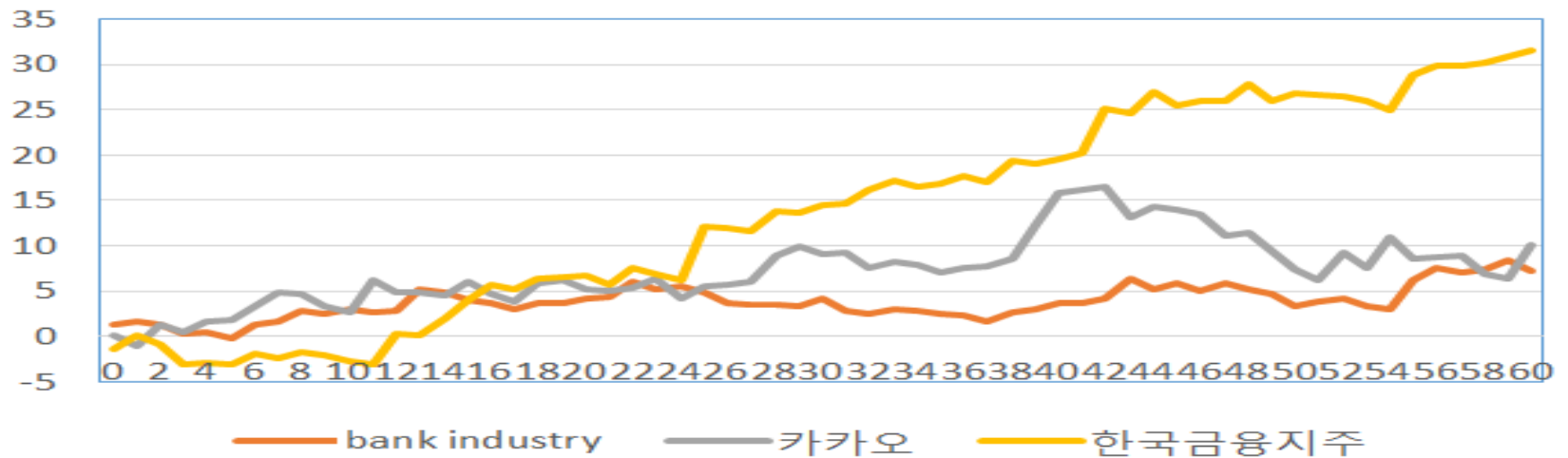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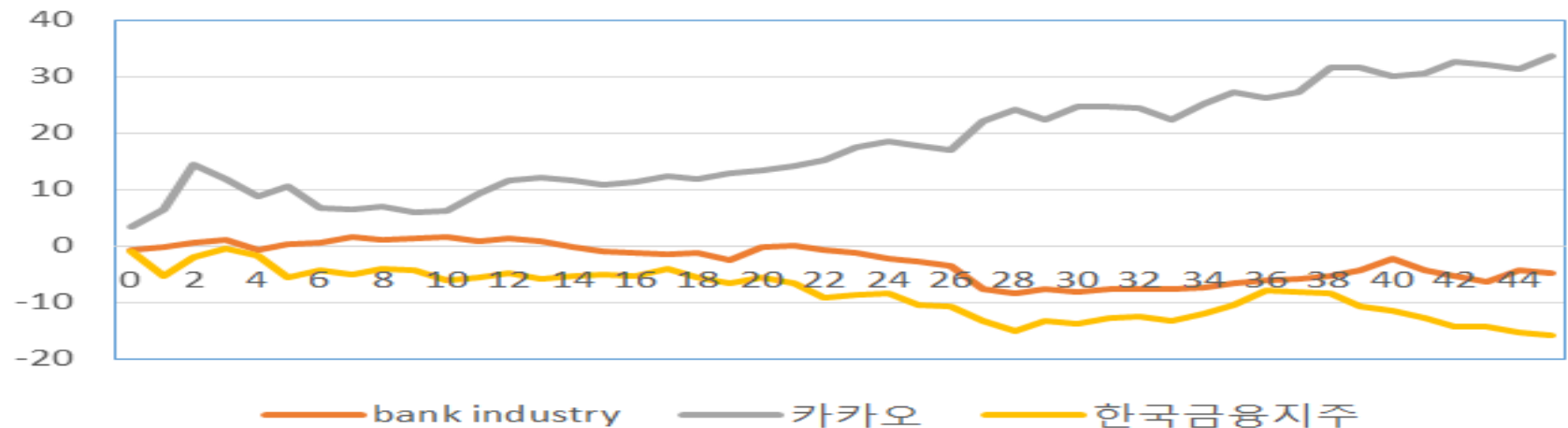
주가수익률을 이용 사건분석 방법을 적용한 평가

- ▶ 재무금융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주가수익률에 바탕을 둔 사건분석 (Event study)
 - 카카오뱅크에 대한 본인가가 결정된 날과 영업을 개시한 날을 사건일로 간주하고 주가수익률을 분석
 - 주식시장전반에 걸친 시장수익률을 실제수익률에서 차감한 후 누적한 누적초과수익률 (Cumulative Abnormal Return) 분석
- ▶ 사건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중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본인가 이후 누적초과수익률 CAR



영업개시이후 누적초과수익률 CAR



사건분석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 ▶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이후 국내시중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은 작지만 양(+)으로 나타남
 - 영업개시일 이후 국내시중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은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식시장에서 평가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시중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 최대주주인 금융기업은 본인가 이후 양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임 반면 ICT기업은 영업 개시 이후 지속적인 양(+)의 초과수익률을 보임
 -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은 본인가 이후 양(+)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임. 이는 인허가를 획득에 따른 혜택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영업개시일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음.
 - 다음카카오는 영업개시일 이후 양(+)의 누적초과수익률
 - 영업개시일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편리성을 가능하게 한 네트워크를 가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책

- ◆ 은산분리 규제
- ◆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금융지주회사에서의 정보 공유
- ◆ Next Step?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책 방향

- ▶ **은행 vs. 인터넷기업:**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이 “은행” 성격 또는 “인터넷 기술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미래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비슷한 논리로 핀테크기업 규제에 있어서 금융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또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감독을 할 것인지가 핀테크기업의 생성 및 성장의 관건으로 작용
- ▶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분야이므로 감독 및 규제에 있어 “은행”과 “인터넷기술기업” 양 측면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
 - 은행산업의 고유 영역 (건전성 규제, 여신관련 규제 등) 에 있어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확실한 제재를 할 필요
 - 특히 동일인 여신한도 등에 있어 고의적인 위반은 규제 강화
 - 그 외의 분야는 인터넷산업 또는 핀테크 산업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
 - 사전적 규제가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금융서비스 또는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는 영역은 규제에 대한 감독당국의 전향적 접근필요
 -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제대로 된 경쟁이 도입되어야 은행산업이 발전되고, 예금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낮은 비용에 받을 가능성 증가

은산분리 배경 및 내용

- ▶ 은산분리 규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상한선 10%, 의결권 상한선 4%)
- ▶ 은산분리는 감독 당국의 사전적 규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됨
 - 지배구조가 작동하지 않은 은행의 부적절한 행위 (횡령/배임 등)나 지나친 리스크 추구행위로 부실이 발생하면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하므로 bank run을 막기 위해 예금보호.
 - 예금보험에 대한 반대급부로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가 있음
 - 그러나, 본질적으로 은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외부에서 감시 예방하기는 어려움
 - 사전적으로 은행의 내부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리스크 관리를 도모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은행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 및 이사진에 대한 적격성 심사
 - 특히,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대주주가 산업자본인 경우 계열사/특수관계인에 대한 부실대출 등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에 대하여 지분규제를 도입

은산분리에 따른 소유구조 및 대출에 미치는 영향

- ▶ 인터넷전문은행은 작은 자기자본과 건전성 규제하에서 대출여력이 거의 소진되어 추가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필요
- ▶ 은행의 전통적 업무인 대출업무에서 시중은행과 실질적인 경쟁을 하고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규모 확충이 필요
 - 출범 이후 추가 자본 확충 (카카오뱅크 5000억, 케이뱅크 1000억)에도 중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 규모는 매우 작음
 - KB 자기자본 24조, 대구은행 자기자본 3.8조 수준임. 이들 은행 자기자본은 오랜 기간 축적된 이익잉여금에 의존
 - 자기자본이 작아 단기적으로는 대출시장에서의 경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은산분리 제약이 완화되면, KT/카카오가 지분을 늘리며 증자가능
 - 은산분리규정이 완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KT와 카카오의 지분이 증가하여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주주간 옵션계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은산분리규제 완화만으로 충분한 자본확충 불가능

- ▶ 은산분리가 완화되어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의 주주구성과 지분율을 유지하며 단기간에 유상증자로 상당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축적하기는 어려움
 - 기존주주들의 구성과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이들만 참여하는 유상증자로 기존은행들과 경쟁을 위해 필요한 자본확충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
 - 다음카카오 2017년 반기 단기순이익 830억, 자산규모 4조 8천억, 부채비율 30% 임. 다음카카오도 사업재편, 또는 자체 차입금 증가 또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이상 대규모 유상증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움
- ▶ 결국,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준으로 자기자본 확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제안

- ▶ 일반적으로, 특정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규제의 일관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 ▶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구조와 운영방식 상 규제원인 행위 발생 가능성 낮으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
 - (현재 준비중인) 프로세스 (알고리즘)에 의해 기업여신 심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대주주의 계열사를 위한 사금고화 가능성 완화됨
 - 모든 대출결정이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의 감독 방법도 창의적이고 혁신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최대주주가 따로 존재하는 가운데 대주주인 산업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내부감시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음
 - 규모가 작아 부실경영 등이 발생해도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위험이 작음. 사전적 문제 가능성이 낮아지면 규제 완화할 필요
- ▶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방식에 있어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남.**
 - 소비자와의 비대면방식, 무점포방식의 영업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
 - 은행입장에서는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물론 이 영업방식을 전제로 “인가”를 받아 charter value 획득했고, 인건비 등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금융지주회사에 있어 정보공유에 관한 규제

- ▶ 인터넷 전문은행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빅데이터 활용 필수
 - 은행시장의 경쟁구조를 강화하고, 혁신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장기적 발전과 성장이 필요.
 - 은행의 전통적 영역으로 보이는 대출부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영역에서의 성장이 필요.
- ▶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 인터넷전문은행이 ICT 기업을 주주로 포함하여 기존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통신, 인터넷 사용에 관한 빅데이터를 신용위험 평가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 발생
 - “Thin File”로 인해 중신용/저신용 등급자로 구분되는 금융소비자 가운데 실제 신용위험은 낮은 금융소비자 존재
 - 기존에 사용된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위험도를 평가하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존재
- ▶ 이런 금융소비자는 기존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가 신용평가에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비용으로 신용공급을 받을 수 있음

인터넷전문은행 신용평가 빅데이터 사용 안 하는듯

- ▶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신용등급자 또는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이 국내은행 평균보다도 낮음
- ▶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빅데이터를 이용 신용평가에 도입한 결과 중신용/저신용 등급자가 혜택을 받는다는 증거는 아직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ICT 기업 또는 금융기업들이 가진 정보에 대한 활용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빅데이터와 기존 신용정보를 사용한 신용평가모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형개발과 함께 다음 문제를 해결할 필요
 - 통신 또는 SNS 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행정/감독 당국과 관련된 규제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함
 - 중신용 또는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신용제공에 따른 경제성 확보 필요
 - 참고로, SNS 상의 인적 네트워크, 메시지 관한 정보는 자금 조달 및 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차주의 신용위험을 예측할 수 있음
 - Credit Scoring with Social Network Data (Hurley & Adebayo, 2016)
 - P2P 대출시장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경우 social capital이 자금조달을 받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경우 자금조달비용 (이자율)에 영향을 미침 (Xu, Qui, Lin, 2011)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 ▶ 빅데이터는 관측 개체의 매우 세세한 자료(micro data)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자 함.
- ▶ 자료의 세세성에 기인하여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해짐 (임요한, 2017)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로서 K-익명성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됨
 -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로서 요구되는 K-익명화가 고차원 자료에 있어 많은 정보손실을 가져옴. 자료의 차원이 커짐에 따라 정보손실의 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함 (임요한, 2017),
- ▶ 수학 통계학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빅데이터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개인정보보호가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음 (임요한, 2017, 천정희, 2017)
- ▶ 따라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정책도 학문과 기술발전을 수용하고, 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

금융지주회사에서의 정보공유에 대한 정책

- ◆ 금융지주회사에서 관계사/계열사 보유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완화
 - 현행 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에서 관계사/계열사 보유 정보 공유가 금지됨.
 - 주식보유로 형성된 관계사가 가진 정보를 사용이 어려움.
 -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낮은 성과에도 원인으로 작용 (윤선중, 2015)

Next Step 1

- ▶ 향후 은행산업을 포함 금융산업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낮은 비용에 공급하기 위해서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 필요
- ▶ 경제 전반에 대한 리스크가 작다면 이들이 가지고 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창업/성장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
 - 핀테크 기업들의 규모가 대부분 작기 때문에 이들의 파산시 발생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혁신금융상품/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베드”를 허용할 필요 (구자현, 2016)
 - 금융규제를 적용하기 이전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를 일정 규모 이하로 한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단기간에 걸쳐 금융혁신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업이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적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

Next Step 2

- ▶ 경쟁 활성화가 중장기적으로 은행 및 금융산업에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인식 필요
- ▶ 새로운 사업모델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도모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단기적으로 추가적 인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 필요
 - 인허가 획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어떤 기업에게 인가를 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

감사합니다